

# ‘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9

## 유한계급론 : 경제학의 다른 주장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맨큐의 경제학은 많은 경제학의 주장들을 소개했지만, 모든 주장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비행태를 정확하게 분석한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살펴볼 것이다. 베블런의 유한계급론(有閑階級論)은 경제학을 확정된 사실이라고 오해하는 일부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 만큼 경제학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경제학은 사회나 개인이 희소한, 넘쳐나지 않은 자원을 어떻게 관리 또는 소비할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를 전제로 맨큐의 경제학 1장에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설명했다. 그중 사람들이 희소한 자원의 소비를 결정하는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며, 그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또 선택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합리적’이란 말은 이성적으로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 내가 가진 희소한 자원을 소비한다는 뜻일 것이다. 합리적 소비를 통한 효용(만족)의 증가는 소비한 그 사람의 소비한 양에 종속되어 있다. 즉, 옆집 사람이나 회사 동료의 소비는 나의 만족(효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맨큐의 경제학의 세계에선 그럴지도 모른

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편집실의 동료가 최신식 외산 고급 세단을 타고 출근을 하면, 내 차는 한없이 낡고 후져 보이고, 그와 동시에 나도 후지게 느껴진다. 동료의 소비는 나의 통장잔고를 확인하게 하고 나의 새로운 소비의 원인이 된다. 통장잔고가 부족해 당장은 소비할 여력이 없을지라도, 동료의 소비는 그 주변 사람들의 잠재수요라도 높여 놓는다.

신고전과 경제학의 핵심적 내용인 ‘수요공급이론’의 내용은 이렇다. 물건의 가격이 내리면 싼값에 내가 가진 희소한 (= 소중한) 현금을 지출하여 그 물건을 소유하며 나의 만족 (= 효용)을 얻는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미룰 것이다.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나?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4년 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렀다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은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소비하지 않는다. 시장에는 우리가 소비하는 다양하고 많은 재화가 있다.

맨큐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개인의 입장에서 동네 재래시장 입구에서 파는 셔츠와 외국산 고가 브랜드 셔츠와의 만족도(효용) 차이가 그 둘의 가격 차이만큼 합리적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저녁 끼니를 걱정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의복을 찾고, 잠잘 곳을 찾는 절대 빈곤의 처지가 아니라면, 합리적 개인들은 싸다고 사지 않는다. 외산 고가 브랜드를 나에게만 싸게 판다면 당장 달려가서 살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싸게 판다면 아마 우리는 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나의 존엄과 품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화의 효용을 소비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우리의 이런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백 년도 넘는 과거에 설명한 사람이 있었다.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이다. 베블런의 설명이 우리의 행동과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보자.

## 유한계급의 기원

유한계급제도는 봉건시대 유럽이나 일본처럼 발달했던 야만 문화에서 가장 잘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회에서는 계급 간의 구별이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다. 그러한 계급적 차이를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 요인이었다. 그것은 몇몇 계급들에 할당된 직업들 사이에 적용된 구별방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상류 계급들은 관습상 생산 활동을 면제받았고, 어느 정도 명예가 따르는 일을 하게끔 정해져 있었다.

어느 봉건사회에서나 가장 명예로운 직업은 당연히 전사였고, 그다음으로 명예로운 직업은 대체로 성직이었다. 물론 노골적으로 전쟁을 즐기지 않는 야만 사회에서는 성직자가 전사보다 명예롭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전사나 성직자 같은 상류 계급들은 생산 활동을 면제받는다는 원칙이 봉건사회를 지배했고, 그러한 면제는 그들의 우월한 신분을 나타내는 경제적 표시가 되었다. 인도의 브라만 계급은 상류 계급들이 생산 활동을 면제받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유한계급은 귀족계급과 성직자계급 그리고 그들은 따르는 많은 수행인들과 시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한계급이 하는 일들이 분화되어 있긴 했어도 경제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생계와 사회의 생산에 도움이 안 되는 취미생활 같은 것을 말한다. 한가롭고 비생산적인 상류계급, 즉 유한계급들은 정치, 전쟁, 종교

의식, 스포츠 같은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이다. 먹고살기 위해 매일 해야만 하는 육체노동 즉, 생산 활동은 열등 계급만 하는 일로 간주된다. 이 열등 계급에는 노예나 하인들은 물론 대개는 상위등급에 속하는 귀족 여성들을 제외한 모든 여자들이 포함된다. 상류계급의 남자들은 모든 생산 활동을 면제받을 뿐 아니라 규범화된 관습에 따라 생산 활동 자체를 못 하게 되어있다.

야만 사회 이전의 유한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원시적 부족 공동체는 사회구조나 생활방식이 단순한 선사적인 소규모 집단을 구성하여 한곳에서 평화롭게 정착해서 사는 가난한 집단이다. 이들 공동체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폭력이나 협잡에 직면해도 일종의 호감을 표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한계급제도는 원시적 부족공동체의 평화로운 생활습관이 시종일관 호전적인 생활습관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제도가 일관된 형태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그 공동체에 전쟁이나 대형동물 사냥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주로 하는 폭력적이고 약탈적 생활습관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가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물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한계급제도는 일찍이 가치 있는 직업과 가치 없는 직업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수적인 제도이다. 폭력과 약탈적 방법이 동원되는 일은 신체적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명예롭고 공명을 획득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고, 일상적 생산 노동은 명예의 요소가 포함될 수 없는 가치 없는 직업이 되었다. 이런 구분방식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거의 무의미해졌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부한 선입견으로 매우 끈질기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선입견에 따라 진행된 차별이 오늘날보다 더 불가피하고 더 결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현대의 이러한 구별방식은 명예로운 일과 비천한 일을 구별한 야만 문화의 구별방식이 변형된 형태이다. 일반 민중들은 전쟁, 정치, 대규모 종교의식, 집단적 오락 등과 관련된 직업들을 물질적인 생활수단의 생산에 진력해야 하는 노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여긴다.

명예로운 일과 비천한 일의 구별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부합하여 이루어진다. 남성과 여성은 체력과 근력뿐 아니라 어쩌면 좀 더 결정적으로는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노동의 분화도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 주기적으로 대형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은 더욱 강한 체력과 민첩하고 사나운 남성의 속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런 과정이 남녀의 직업분화를 더욱 촉진하고 확대시킬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런 집단이 다른 집단과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하는 순간부터 가속화되는 남녀의 역할분화는 명예로운 일과 생산 활동 사이의 구별을 더욱 발달한 형태로 이끌게 될 것이다. 약탈본능에서 비롯된 남자들의 사냥과 전투 활동들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여자들의 노동과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면, 위험을 감수하는 용맹성을 과시하지 못하는 어떤 노력과 활동도 남자들에게 가치 없는 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러한 전통이 일관성을 획득하고,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상식이 되면, 이 전통을 행동규범으로 확립시킨다. 그 공동체의 약탈 생활이 장기간 지속하여 생활습관으로 정착되면 경쟁자들을 살해하거나 파멸시키는 일과 외부 세력을 정복하거나 굴복시키는 일이 그 집단 내에서 강력한 남자들의 공인된 직무가 된다. 그들은 명예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는 다른 생산적 직업들에 속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된다.

사냥이나 약탈로 획득한 노획물이나 전리품은 사냥꾼이나 약탈자가 보유한 탁월한 능력의 증거로 평가된다. 이러한 단계의 문화에서 흔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공인된 자기 과시의 형식은 경쟁이다. 노획물들은 경쟁에서 승리했음을 과시하는 전통적 증거로 동원된다. 따라서 강탈이 아닌 거래 등의 다른 방법으로 재화를 획득하는 일은 최고의 계급에 있는 남자라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명예로운 일과 강탈행위를 동일시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산적인 노동을 멸시하는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한다.

### 금력(金力) 과시경쟁

문화의 진화과정에서 유한계급제도와 소유권 제도의 발생 시점은 일치한다. 이 두 제도는 경제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발생 시점 역시 필연적으로 일치될 수밖에 없다. 동일한 시점에서 갓 발달하기 시작한 두 제도는 사회를 구성하는 동일한 일반적 사실들의 또 다른 측면에

불과하다.

유한계급과 노동계급의 구별은 초기계급사회(발달이 덜 된 초기 야만 문화)에서 유지된 남자와 여자들의 분업을 기원으로 한다. 그와 비슷하게 최초의 소유권은 공동체의 강력한 남자가 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나타난다. 좀 더 정확하게, 여자에 대한 남자의 소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남녀구성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각종 유용한 물건들을 습관적으로 전유했지만,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공유하기도 하는 등 개인이 전유하여 소비하는 개인 소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여자에 대한 소유권은 좀 더 원시적인 야만문화에서 여성 포로나 노예를 강탈하면서 생겨난 것이 확실하다. 여자를 강탈하여 전유하게 된 최초의 이유는 여자들이 전리품으로 유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리품인 여자를 적으로부터 강탈하는 관행(약탈혼)은 소유와 결혼을 동일시하는 관례를 낳았고, 그로부터 남성이 가부장적인 역할을 하는 가부장적인 가족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과정은 여자들을 비롯한 다른 포로들이나 하층민들까지 노예화되는 과정, 그리고 강탈해온 여자들 이외의 부족 내의 여자들에 대해서까지 소유하고 결혼하는 관례가 확대되는 과정을 동반했다. 약탈적인 생활환경에서 진행된 경쟁의 결과로 강압에 의한 결혼 관행과 소유의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다.

소유와 결혼의 관습은 모두 성공한 남자들이 자신의 업적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용맹성을 입증하는 욕망의 도구일 뿐 아니라, 계급사회에 만연한 지배 지향적 성향에도 이바지했다. 여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기원으로 형성된 소유권의 개념은 여자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도 아우르며 자연스럽게 확대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사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등장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 단계에 이르러 소비용 재화의 유용성이 재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되더라도, 부는 여전히 소유자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명예로운 증거로서 효용성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의 소비이론은 재화를 취득하고 축적하는 목적은 그 재화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재화



문화의 진화과정에서 유한계급제도와  
소유권 제도의 발생 시점은 일치한다.  
이 두 제도는 경제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발생 시점  
역시 필연적으로 일치될 수밖에 없다.

의 소비는 지속적인 재화축적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초보적인 의미의 소비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소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소유권을 생성시키는 근본적인 동기는 그것이 생성시킨 소유권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 소유권 제도와 관계된 사회구조의 모든 특징들을 발전시키는 데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부를 소유하면 명예를 얻는다. 부는 다른 사람들의 선망과 부러움을 사는 명예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재화를 소비하는 동기는 물론 그밖에 상상 가능한 또 다른 재화취득 동기들, 그중에서도 특히 부를 축적하는 동기를 이만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명제는 없다. 사유재산 사회에서 극빈층에게 이 명제를 온전히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어 당장 굶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의 명제는 그들 빈곤계층의 동기마저 지배한다.

다른 한편으로 오로지 부의 축적에만 관심을 쏟는 사회 구성원이나 계급들을 살펴봐도 생존이나 육체적 안락이라는 동기는 결코 그처럼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극빈층의 생존조건과는 무관한 환경에서 탄생하여 인간의 제도로 성장했다. 지배적인 동기는 처음부터 부에 대한 시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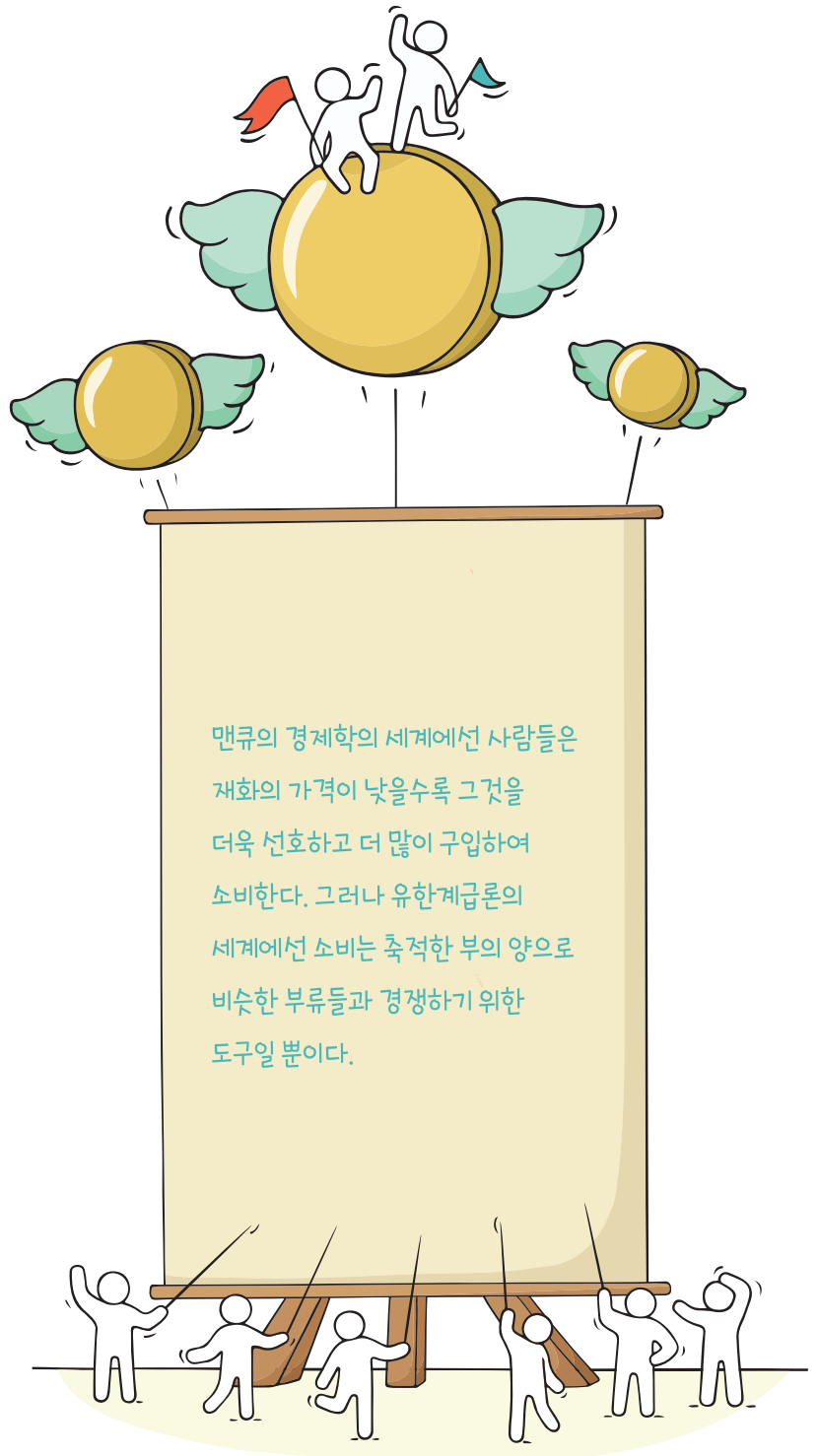
과 선망을 낳는 명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후 발달한 어떤 단계의 문화에서도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만한 지배력을 발휘한 다른 동기는 결코 없었다. 재산은 공격에 성공한 일단의 유목민들이 약탈품을 전리품 삼아 보유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남자의 용맹성은 여전히 집단의 용맹성을 대표했고, 약탈품의 소유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지키는 최상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일단의 유목민들이 어느 정도 자급 자족적인 생산 공동체로 발달하게 되고, 그들이 소유한 재화들은 약탈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것을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증거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재산은 여전히 전리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문화가 진보하면서 그것은 외견상 집단의 구성원들끼리 암암리에 벌이는 소유권 경쟁에서 이긴 자들의 승전기념품 같은 성격을 띠게 된다.

과거 적대적 부족사회의 일상적인 삶과 사고습관을 지배하던 약탈 활동이 생산 활동에 차츰 자리를 내주게 되면서, 축적된 금전이 약탈이라는 명예로운 활동의 전리품을 대신하여 우월함과 성공을 대표하는 인습적인 지표의 자리를 차

지하게 된다. 유목민의 부족사회에서 정착한 계급사회로 이행하며 금전의 소유는 명성과 존경을 부르는 관습적 근거로서 상대적인 중요성과 효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제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서고자 한다면 필수적으로 일정량의 부를 소유해야 한다. 부는 그 자체로는 명예로운 것이 되어 부를 소유한 자는 명예를 부여받게 된다. 이 관습이 좀 더 세련되어지면 조상이나 친지로부터 상속받거나 양도받아 수동적으로 획득한 부가 오히려, 오히려 자신의 노력만으로 획득한 부보다 더 명예로운 것으로 여겨지기에 이른다. 부의 소유는 민중의 존경을 받는 근거가 되자마자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자만심의 필수 조건이 된다. 부를 소유한 한 개인이 정신적 안정감을 얻으려면 그와 비슷한 부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던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설명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소유한 차와 아파트의 가격은 나의 자존심이고, 우월한 나의 아파트 가격은 정신적 안정감을 준다. 그 아파트를 지금과 비교해 싼값에 소유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절망과 분노에 갇혀 부동산 정책과 다주택자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부러워하며 기회를 잡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가 났다. 일정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 또한 그것에 안주하여 만족하지 않는다. 부를 취득할 때의 만족감은 곧 사라진다. 이런 경향은 현재의 금력 기준을 부단히 새로운 부의 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또 이런 경향은 더 높고 큰 만족의 기준을 낳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재산과 이웃의 재산을 비교하는 새로운 재산분류법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축재(蓄財)의 목표는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자신의 금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만족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고, 모두가 불만인 사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경향성은 ‘모든 종의 행동은 생존과 재생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진화생물학의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나의 부(富)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부를 통해 나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재생산(번식)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존과 재생산(번식)의 가능성이 100%가 될 수는 없으므로 끊임없이 부를 추구할 것이다. 안정적인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에 걸쳐 새로운 종으로 끝없이 진화 중이다.

부가 아무리 광범위하게 혹은 평등하게 혹은 요즘 이십 대들의 간절한 소망처럼 ‘공정하게’ 분배되고 또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결코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부를 축적하려는 동기가 생존이나 육체적 안락에 대한 욕구였다면 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욕구들은 생산능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충족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들과의 비교에 바탕을 둔 차별적인 명예를 위한 부의 추구 경쟁은 최종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은 이제 무엇보다도 축적된 금력을 더욱더 명예롭게 과시하려는 노력 혹은 그런 과시를 가능케 하는 노력의 의미를 갖기에 이른다. 우리의 관심을 축적된 금력에 쏠리게 만드는 동기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언제나 이런 금력 과시경쟁을 선도하는 동기이다. 쉽게 요약하면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부를 쌓는다는 뜻이다.

유한계급은 남들과의 금전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부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낭비로 보이는 과시적 소비를 한다. 큰 쓸모를 찾을 수 없는 고가의 장식품을 사들이는 이웃을 볼 때 ‘과시적 소비’라는 빈정거림을 보내게 된 것은 베블런의 공로이다. 베블런은 자신이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과시적 소비를 합리화하는 경제이론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세를 취했다.

맨큐의 경제학의 세계에선 사람들은 재화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것을 더욱 선호하고 더 많이 구입하여 소비한다. 그러나 유한계급론의 세계에선 소비는 축적한 부의 양으로 비슷한 부류들과 경쟁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유한계급은 값비싼 재화의 높은 가격을 아름다움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과시적 소비를 고상한 탐미(耽美)적 취미로 승화시킨다. 그들의 하위계급들은 유한계급의 과시적

소비와 여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기도 하지만, 각 계급의 구성원들은 자신들보다 한 단계 높은 계급에서 유행하는 생활양식을 자신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생활양식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을 흉내 내고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자신들의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런 이상의 달성에 실패하여 평판이 실추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면 그들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도 그렇듯 공인된 규범에 맞추어 생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그 하위계급도 과시적 여가와 소비를 통해 각자의 계급 내에서 자력을 자랑하게 된다.

월세방에 살지만, 외산 고급 승용차를 몰고, 아르바이트하며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핸드백, 가방 등을 집착적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소비의 범주에 속하는 최신 품목들은 가장 극단적인 생계의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그것들을 소비하려고 든다. 각자의 계급에서 소비 경쟁을 벌이는 목표인 체면치레 기준은 최상위계급인 유한계급이 각별히 중시하는 기준이 된다.

유한계급의 관습이 하위계급으로 모방되고 이동하고 확장되었는데, 베블런 시대보다 이전 속도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에는 정보통신 혁명을 통해 빛의 속도로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이전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포스팅은 과시적 소비의 끝판왕이다. 그 포스팅의 주인공들인 인플루언서들은 앞다투어 고가의 신제품을 매력적인 외모를 무기로 아름답게 소비하는 장면을 연출하여 과시적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의 지갑을 털고 있다. 베블런의 냉정하고 무심한 진술은 경제학으로 보이기보다 인류생태 관찰기가 더 적당할 듯하지만, 경제학 교과서를 따라 읽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서술했듯이 많은 과학적 방법과 수학을 동원해서 쌓아 올린 경제학이지만, 경제학은 물리학과는 많이 다르다. 물리학은 지금까지 발견된 물리적 현상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경제학은 경제적 현상의 일부를 일관되지 않은 이론으로 겨우 설명할 뿐이다. 